

한화그룹, 수백억원 은닉계좌 발각

김승연 소유 추정 50-60여개 ... 상속재산 비실명화에 불법증여 의혹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인 은닉계좌 수십여개를 이용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한화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9월19일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돈으로 보이는 수백억원을 전·현직 임직원 등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 50-60개에 나누어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계좌들은 김승연 회장의 자산으로 분류돼 상당부분 주식에 투자돼 있고 회장 최측근들이 10-20년 동안 관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한화그룹은 문체의 차명계좌 50-60개가 김승연 회장의 비실명 상속재산이며 9월 13-14일 해당계좌들을 검찰에 자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50여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김승연 회장의 개인재산일 뿐"이라며 "김승연 회장 개인이나 그룹 차원에서 로비용으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돈 가운데 일부는 김승연 회장 친인척에 건네진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확인되면 한화 측은 상속재산 비실명화는 물론 불법증여에 따른 법적·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부가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일 수 있다고 보고 해당계좌에 이름을 빌려준 전직·현직 한화 임원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또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이 아니라면 다른 계좌에 비자금이 은닉돼 있는지를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키로 했으며 김승연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회장은 2004-05년 한화그룹이 비자금 87억원으로 대한생명 인수를 앞두고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현재 한화그룹 본사와 한화증권에서 압수한 회계장부와 보고서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20>